

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
제2외국어/ 한문 영역(스페인어 I) 정답 및 해설

<정답>

1	①	2	⑤	3	②	4	③	5	④	6	③	7	①	8	④	9	③	10	②
11	①	12	①	13	②	14	③	15	④	16	②	17	③	18	④	19	⑤	20	④
21	⑤	22	④	23	⑤	24	③	25	③	26	②	27	②	28	⑤	29	①	30	①

<해설>

1. 발음 문제 : 목음 h, que, qui, gue, gui

Me quedo en Burgos en el hotel Luna. Me gusta esa ciudad.

(a)[-] (b)[우] (c)[우] (d)[우] (e)[우]

나는 부르고스에 있는 루나호텔에 머문다. 난 그 도시가 좋다.

2. 철자 문제 : 공통으로 들어가는 철자 : tenis, fútbol

Mañana vamos a jugar al te_is y al fút_ol.

내일 우리 테니스와 축구를 하자.

- ① boca 입 ② once 11 ③ cielo 하늘
④ nieve 눈 ⑤ nombre 이름

3. 강세 문제 : 강세 규칙 적용

A : 너는 화요일에 수업이 있니?

B : 응, 미술 수업이 있어.

- ① color 색깔 ② joven 젊은(이) ③ nariz 코
④ capital 수도 ⑤ felicidad 행복

※강세의 위치

- (1) 모음이나 n, s로 끝난 단어는 끝에서 둘째 음절에 강세를 준다.
(2) 나머지 자음으로 끝난 단어는 끝에서 첫째 음절에 강세를 준다.
(3) 불규칙 강세를 갖는 단어들은 강세부호를 찍어준다.

4. 어휘 문제 : 그림에서 어휘 찾기

- ① 고양이 ② 지도 ③ 책 ④ 창문 ⑤ 전화

5. 어휘 문제 : 계절을 뜻하는 어휘

A : 한국에는 몇 가지 계절이 있니?

B : 넷. 봄, 여름, 가을과 겨울이다.

- ① 날짜 ② 잔치, 파티 ③ 도서관 ④ 계절, 역 ⑤ 온도

6. 어휘 문제 : 시각 묻기

아나가 내게 ‘몇 시니?’라고 묻는다, 왜냐하면 그녀는 시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.

- ① 목적, 끝 ② 번, 횟수 ③ 시각, 시간 ④ 기후 ⑤ 날씨, 시간

7. 문법 문제 : hay 동사의 쓰임

광장에 _____ 카페테리아들이 있다

- ① 그 ② 몇 개의 ③ 5개의 ④ 좋은 ⑤ 여러 개의

※ hay의 쓰임

(1) 단순히 존재여부를 확인할 때 쓰인다. : 있다(단·복수를 다 받는다.)

(2) hay 동사는 부정관사나 부정형용사 등과 사용된다.

정관사나 소유형용사 등과는 쓰이지 않는다.

8. 문법 문제 : seguir 동사와 현재분사의 진행형 표현

A : 페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니?

B : 스페인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.

* seguir + 현재분사형 : 계속 ~하다

yo	sigo	nosotros/as	seguimos
tú	sigues	vosotros/as	seguís
él, ella, Ud.	sigue	ellos, ellas, Uds.	siguen

9. 문법 문제 : tanto ~ como

A : 그녀들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한다.

B :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. 그녀들은 똑똑하다.

① 부사형 : tan+ 형용사 또는 부사

②③④⑤ 형용사형 tanto + 명사

※ 동등비교(~만큼 --하다)

(1) tan + 형용사, 부사 + como ~

• Juan es tan simpático como tú.

• Lo conozco tan bien como tú.

후안은 너만큼 상냥하다.

나는 너만큼 그를 잘 알고 있다

(2) tanto(s)/tanta(s) + 명사 + como ~

- Juan tiene tantos libros como Ana. 후안은 아나처럼 책이 많다.

(3) 동사 + tanto como ~

- Ellas no saben tanto como dicen todos.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만큼 그녀들은 많이 알지 못한다.

10. 문법 문제 : 시간 표현에서 사용되는 hacer 동사

A : 너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?

B : 일주일 전부터 아프셔.

① que :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또는 관계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로 사용된다.

② hace : hacer 동사가 기간의 표현에서 사용됨

(1) hace (시간, 기간) que (주어) + (동사 현재) : que 이하한지 --기간이 된다.

- A : ¿Cuánto tiempo hace que vives aquí? 여기에 사는지 얼마나 되니?

B : Hace tres años que vivo aquí. 나는 여기에 사는지 3년 된다.

(2) desde hace (시간, 기간) : ~ 전부터

- A : ¿Desde cuándo vives (tú) aquí? 언제부터 넌 여기에서 사니?

B : Vivo aquí desde hace tres horas. 나는 여기에서 3년 전부터 산다.

(3) hace ~전에: hace dos horas 2시간 전

③ antes : 옛날에 (부사로서 명사가 뒤에 바로 올 수 없다. antes de여야 전치사로서 명사가 올 수 있다.

④ cuando : ~ 일/할 때 (관계사)

⑤ cuándo : 언제 (의문사)

11. 문법 문제 : 전치사의 쓰임 알기

A : 그녀는 이웃들에게 상냥하다.

B : 맞아,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딸로 삼았다.

* ser simpático con ~: ~에게 상냥하다

* tener A por B : A를 B로 삼다

12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글의 내용 이해하기

그는 30살이다. 기혼자이고, 자식이 없다. 그는 의사이다. 그는 카라카스 근교의 마을에 살고, 버스로 병원에 간다.

13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내용 이해하고 사진에 없는 사람 찾기

내 친구들의 사진이다. 이애는 카르멘이고, 그녀 옆에 **홀리아**의 사촌인 라우라와 호세가 있다. 가장 키 큰 애는 필라르이다.

* junto a ~ : ~ 옆에 (al lado de ~와 함께 알아둔다.)

14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내용 이해하고 알맞은 말 찾기

A : 너 안 좋아 보인다. 무슨 일이 있니?
B : 아무 일 없어. 단지 피곤할 뿐이야.

① 명랑한 ② 편안한 ③ 피곤한 ④ 만족한 ⑤ 반가운

15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내용 이해하고 알맞은 말 찾기

A : 안녕! 너의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?
B : 아니오, 부인.
A : 그럼 너의 아버지는?
B : 역시 안 계셔. 그들은 영화관에 계신다.

① 그렇게 ② 항상 ③ 역시 그래
④ 역시 아니다 ⑤ 물론 그래

16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떠나는 달 찾기

A : 나는 리마에 간다.
B : 언제 가니?
A : 내 생일 **7일후에**.

① 4월 ② 5월 ③ 6월 ④ 7월 ⑤ 8월

* mi cumpleaños : 나의 생일

17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내용 이해하고 알맞은 말 찾기

A : 나는 슈퍼마켓에 가야 한다.
B : 왜?
A : 빵과 우유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.

① 불을 켜다 ② 기타를 치다 ③ 슈퍼마켓에 가다
④ 산에 올라가다 ⑤ 텔레비전을 끄다

18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전자우편의 내용 알기

안녕, 루이사:

이것은 나의 **휴가/방학 계획**이다. 발렌시아에 있는 나의 **가족들을 방문**할 거다. 거기서 **해변을 산책**하고 싶다. 그런 후에, 런던에서 **영어를 공부**할 생각이다.

안녕,
수미

* pasear por ~ : ~를 산책하다

19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맞은 말 알기

A : 선생님, 건물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, 들어가고 싶어요.

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?

B : 이렇게 말할 수 있지: “_____”

- ① 실례합니다. ② 지나갈게요. ③ 지나가게 해주시겠어요?
④ 지나가도 될까요? ⑤ 나는 기분이 좋아요.

20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내용 이해하기

A : 너는 네 일에 좀 더 **신중할** 필요가 있다.

B : 미안합니다.

A : 너는 **집중해야** 한다.

B : 그렇게 그것(일)을 할 겁니다.

* poner atención : 집중하다, 주의하다

21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맞은 말 찾기

A : ¿너의 여동생은 어떠니?

B : 그는 머리가 검어. 매우 친절해.

- ① 그는 어디에 있니 ② 그녀는 무엇을 원하니
③ 너의 성은 무엇이니 ④ 우리 언제 만날까
⑤ 너의 여동생은 어떠니

22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맞은 말 찾기

A : 여보세요?

B : 안녕, 에두아르도 있어요?

A : 예. 누구세요?

B : 나는 미겔입니다.

A : 잠깐만요, 지금 바꿔드리지요.

- a.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b. 누가 아니 c. 내가 누구
와 통화하고 있나요 d. 누구신가요

23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그림의 상황을 표현한 문장 알기

- ① 잔으로 주스를 마신다. ② 접시에 후식을 나른다.
③ 부엌에서 포크를 씻는다. ④ 숟가락으로 수프를 먹는다.
⑤ 칼로 고기를 자른다./썰다.

24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맞은 말 찾기

A : 커피 마실래, 차 마실래?
B : 아무거나 상관없어. (내게는 마찬가지야.)
A : 좋아, 그렇다면 네게 커피를 줄게.

- ① 됐어(충분해)! ② 천만에. ③ 아무거나 상관없어.
④ 동의해(좋아)! ⑤ 넌 실수했어./혼동하고 있다.

25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같은 뜻의 말 찾기

A : 당신은 이번 주말에 쉴 겁니까?
B : 물론이지요! 나는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일하지 않습니다.

- ① 실례해요 ② 죄송해요 ③ 물론이지요
④ 참 좋군요 ⑤ 그건 그런 게 아니요

26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광고문의 내용을 이해하기

- 아이들을 돌보는 경험을 가진 부인을 찾습니다.
- 학교에 내 아이들을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.
- 한 달에 500유로입니다.

27. 의사소통 구문 문제 : 같은 뜻의 말 찾기

A : 안녕! 넌 어떻게 지내니?
B : 잘 지내, 고마워.

- a. 넌 어떻게 지내 b. 널 어떻게 대하니
c. 너를 어떻게 데려가니 d. 넌 어떻게 지내

28. 문화 문제 : 마드리드 사람들에 대해 알기

많은 마드리드 사람들은 밤에 거리로 나간다. 저녁을 먹고 늦게 자지만, 일찍 일어난다. 그들의 31.7%가 6~8시 사이에 출근한다; 40%가 8시부터~9시까지 출근한다; 28.2%는 9시에서 10시에 출근한다.

29. 문화 문제 : Camino de Santiago에 대해 알기

이것은 산티아고 길이다.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프랑스에서 콤포스텔라의 산티아고까지 걸어서 간다. 일반적으로 이 도시까지 도착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다.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산티아고 길을 여행한다.

30. 문화 문제 : 콜롬비아 화가 보테로에 대해 알기

- 이 그림의 이름은 모나 리사이다.
- 콜롬비아인 페르난도 보테로의 것이다.
- 그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뚱뚱하게 그린다.

- ① 보테로의 『모나 리사』 ② 프리다 칼로의 『원숭이와 자화상』
 ③ 디에고 리베라의 『목화 나르는 남자』 ④ 벨라스케스의 『궁정의 시녀들』
 ⑤ 피카소의 『게르니카』

* Fernando Botero(1932~) colombiano

유명화가들의 그림을 독특한 직관력으로 과장되고 뚱뚱하게 패러디함으로써 그의 특유의 독특함으로 화제가 되곤 했다.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해 현대인들의 불안한 우상성을 파괴하고 있다.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과한 채 외모만 보고 거부감을 갖고, 현명한 판단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.

* Frida Kahlo(1907~1954) mexicana

아스테카와 마야적인 것에 강한 뿌리를 두고, 화려한 색채로 전통적 소재와 신성한 동물들을 등장시킨다.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표현한 자화상이 많다.

* Diego Rivera(1886~1957) mexicano

멕시코의 신화·역사·서민생활 등을 민중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힘이 넘치는 벽화를 그렸고, 민중에 대한 넘쳐흐르는 애정을 그림으로 표출하였고, 유럽 회화의 전통을 멕시코의 전통에 결합시키려고 애썼다.

* Diego Rodríguez de Silva y Velázquez (1599~1660) español

벨라스케스의 종교·신화화는 주제의 제약에 속박되지 않는 폭넓은 소재에서 종교적 인간성을 다루고 있으며, 빛과 색채의 분위기를 인상적 표현으로 적용시켜 바로크식 공간 구조와 기법이 종합되어 있다.

* Pablo Picasso(1881~1973) español

스페인 내전 때 나치의 폭격을 받은 스페인 바스크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의 참상을
고발하는 피카소의 작품으로 입체주의의 평면화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고 한다.

